



오 록 도 행 복 칼 럼

박 미 라
동화작가

20년 전,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뽕뽕’이라 불렸다. 노래방만 가면 트로트를 불렀던 나는, 6.25전쟁을 다룬 ‘군세여라 금순아’ ‘이별의 부산정거장’ ‘경상도 아가씨’ ‘전선야곡’부터 ‘동숙의 노래’ ‘섬마을 선생님’ ‘노란사스 입은 사나이’ 등등 아주 오래된 트로트를 불렀다. 핑클의 삼류 발랄한 노래나 싸이의 ‘챔피언’ 같이 트렌디한 선곡들 사이에서 트로트 매들리는 자주 ‘뜨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테크노 힙합 댄스곡으로 열광의 도가니가 된 네 평 남짓 노래방에서 뜬금없이 흐르는 ‘해~당과 피고 지는~ 섬마을에~’ 참새 따라 찾아온 총각 선생님~은 ‘민폐’로 물리기에 충분했다.

그래도 나는 꾀꿀했다. 신세대 노래는 잘 모르기도 했고, 멋지게 부를 능력조차 없었지만, 트로트라면 자신 있었다. 대대로 음지의 피를 타고 난 탓에 음악적으로 홀름하다고 할 순 없지만, 가사만은 완벽히 외우고 있었다.

내가 트로트에 나를 조예(?)가 깊었던 건 순전히 일 때문이었다. 라디오 작가로 처음 맡았던 프로그램이 부산교통방송의 ‘오승룡의 부산야곡’이었다. 오승룡 선생님은 성우로는 최초로 방송인 명예의 전당에 오른 전설적인 분이다. 그 분의 깊고 구수한 목소리와 그에 곁들여진 오래된 트로트들은 한국 현대사의 굴곡진 아픔과 슬픔을 싣고 청취자에게 전해졌다. 사람들은 추억의 이야기와 노래를 통해 피난과 독재를 거쳐 온 시절들을 되돌

트로트로 대동단결!

아보며 위로와 안식을 얻었다.

20대의 내가 50~60대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옛날이야기를 풀어내려니 어려운 점이 많았다.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오래된 자료들을 수집했고, 옛날 것이라면 무엇이든 귀를 기울였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건 역시 트로트였다. 자료가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면, 노래에는 인간사 구구절절 사연이 담겨있었다. 40계단 난간에 앉아 이복에 두고 온 고향을 그리워하는 실랑민이 되어 보기도 하고, 월남에서 돌아오자 식구들이 반가워하지만, 전쟁의 참혹함을 차마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는 김상사가 되어 보기도 했다. 덕분에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인생사 굵아굵아 희로애락을 원고에 녹여낼 수 있었다.

바야흐로 트로트 시대다. 지난해 ‘미스트롯’으로 시작된 트로트 열풍은 올해 ‘미스터 트롯’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다. TV를 틀면 예능이건 광고건 트로트 세상이다. 너튜브를 몰랐던 부모님은 신나는 트로트 동영상을 발견해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즐거워하신다. 트로트를 부른다고 아우가 울려 퍼지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세월이 참 많이 변한 모양이다.

지난 어린이날, 팔아이가 요구한 선물은 ‘노래방 마이크’였다. 그날 마이크가 아니라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에 연결해 집이든 자동차든 있는 공간을 노래방으로 만들어주는 요즘 인기 아이템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날 행사가 모두 취소된 우울한 어린이날, 우리 집은 노래방이 되었다.

남편과 나는 팔아이에 노래를 부르라고

재촉했다. 아이는 2년 동안 방송댄스 수업을 들었던 터라, 우리는 멋진 아이들 춤과 노래를 기대했다.

그런데 웬걸. 팔아이는 망설임 없이 트로트 ‘니가 왜 거기서 나와!’를 선택했다. 재킷을 벗어던지고 신나게 엉덩이를 흔들며 막춤을 쳤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

신나고 단순한 멜로디, 직설적이고 유머러스한 노랫말에 그만 반해버렸다. 저절로 엉덩이가 들썩이고 어깨가 쉴름거렸다. 어색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다. 우리는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다.

트로트는 공감이라는 깨달음이 찾아왔다. 같은 주파수로 함께 웃고 있는 것. 예전의 내가 트로트로 청취자들과 마음을 나눴듯이, 우리 가족은 지금 트로트로 한마음이 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국민들 역시 ‘우리네 사연을 담은’ 트로트로 대동단결,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치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곽태욱의 바람고개 이야기기II

광선대가 된 강선대의 사연

문헌동에 강선대가 있다. 신선이 내려온 곳이라는 뜻을 가진 곳이다. 그런데 누군가의 빗나간 상상이 보태져 요즘은 ‘광선대’로 불리기도 한다. 아니 광선대가 맞다고 우기기도 한다. 이쯤 되면 강선대의 유래를 짚을 필요가 있다.

강선대는 지금부터 2200여 년 전 진시황의 신하인 서북이 장생불로초를 구하기 위하여 한반도로 건너와 이곳을 다녀갔다는 전설이 있다. 바로 배정고등학교 뒷산이다. 그 위로 해운파크맨션이 자리잡고 있다. 담 하나를 두고 특수목적고인 배정미래고등학교도 옆에 있다. 지형상 이곳은 고갯마루다. 임진왜란 때만 해도 인적이 드물고 때론 산적이 출몰했을 정도로 송림이 우거져 있었다고 전해진다. 장고개라는 지명이 생긴 이유이기도 하다. 고갯마루에서 멀리 동남쪽을 내다보면 대한해협의 푸른 파도가 넘실댄다. 바로 눈앞엔 영도가 손에 잡힐 듯 가깝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의문이 든다. 넓지도 않은 이곳에서 신선들이 노닐었을까. 사실 1960년대만 해도 이곳은 계단식 밭이 듬성듬성 있었고, 아름드리나무는 손꼽을 정도였으며, 산의 생김새는 뚱뚱하고, 산의 이쪽 끝과 저쪽 끝이 한눈에 보였다. 애초부터 광선대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다.

그리고 보면 강선대에 대한 잘못된 기록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어떤 이는 현재의 배정고등학교 자리에 진시황의 사절단이 다녀간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서북 사당을 지어놓고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사진도 함께 실었다. 그 사진의 피사체는 현재 배정미래고등학교 발아래 있는 골짜기의 허름한 토담집이다. 버젓이 출판한 책에 실어 수년 전 서점 판매까지 했다. 땀만 지금은 초고속 정보시대에 살고 있다. 그까짓 케케묵은 한 조각 역사는 이른바 썩은 이야기다. 세상만사가 손바닥 안의 핸드폰 속에 다 있는데 광선대라 한들, 배정고등학교 터에 서북 기념 사당이 있었다 한들, 누가 관심을 가질까. 그래도 조금만 더 사실을 보태면, 강선대와 광선대가 함께 등장하거나 혹은 광선대만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한국의 지방자치제가 새 출발점을 맞게 되었던 1995년 이후 아니었겠나 싶다. 그 무렵 지자체마다 내 고장 자랑거리를 내놓았다. 이때 상상력이 풍부한 그 누군가가 그 같은 엉터리를 만들어 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강선대는 2200여 년 훨씬 이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장생불로초 원정대가 강선대를 다녀간 것도 그 때문이다. 배정고등학교 교가에도 “태백산 내달리려 끝을 맺은 곳 강선대에 높이 솟은 배움의 전당...”이라는 가사에서 강선대의 존재가 확인된다. 배정고등학교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4월 10일에 제1회 입학식을 거행하였다. 광선대를 강선대로 잘못 표현했을 리 만무하다고 확신하는 이유다. 우암동 주민들은 경상도식으로 ‘강산대’라 불렀다고 한다. 이쯤 되면 더는 서북 기념 사당이 배정고등학교 부지에 있었다거나, 광선대라는 엉터리 지명을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문제는 그런 엉터리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전지로 둔갑한다는 점이다. 이른바 만고의 거짓말이 되는 것이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역사를 어지럽히는 엉터리가 자리 잡기 전에 마땅히 지우거나 바로 잡아야 한다.

소설가, 향토사연구가

함께해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8~69세 저소득층 및 미취업 청·장년 등

I 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특정취약계층*

* 특정취약계층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여성가장,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15~24세) 등

II 유형 청년(만 18~34세, 소득무관), 중장년(만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단계별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을 위한 수당 지원

1단계 취업상담

직업심리검사 / 구직경로 설정

참여수당
최대 20~25만원

2단계 직업능력 향상

직업훈련
일경험, 해외취업 프로그램 등 연계

훈련비(최대 300~500만원)
참여수당 월 최대 40만원(6개월)

3단계 취업알선

이력서·면접 상담 / 동행면접

구직촉진수당 최대 150만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1회성)

구직촉진수당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 한시적 제도**!

▶ 3단계에 진입한 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자에게 **월 50만원 x 3개월** 지원

※ 2020.11~2020.12.31. 동안 초기상담을 진행한 경우만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등 만 65세 이상은 월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www.work.go.kr/pkg)

※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제출 필요

문 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동명대학교 생산자협동조합 조합원 모집 (재도전 지원)

동명대학교 LINC+사업단에서는 카페 및 베이커리를 운영하고자 하는 청년 및 젠트리피케이션 피해에 따른 재도전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생산자협동조합원으로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모집 개요

- 카페 및 베이커리 관련 식품업계 경력자
- 입주공간 : 동명대학교 강석진 Start-up 빌리지 3층 [부산광역시 남구 신천로428, 동명대학교 21호관 3층]

입주 혜택

- 공간 및 시설 사용 지원 (냉장동고, 오븐, 발효기, 커피머신 등)
- 전문 멘토링 및 마케팅 지원

신청 절차

- 모집기간 : 공고일 ~ 2020. 06. 26. (월)
- 선정발표 : 서류심사 및 대면평가 후 1주일 이내 개별통보

제출서류 및 문의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자유 양식
-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접수
이메일 - imjoo629@tu.ac.kr 로 제출
우편/방문접수 - 부산광역시 남구 신천로428, 동명대학교 21호관 203호
- *우편접수 시, 모집기간까지 도착분

신청 자격

- 바리스타 및 제빵제과 자격증소지자 또는 관련업계 경력자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단, 명칭 등 경력자 예외)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남권인 (부산·울산·경남) 실 거주자

문의처

문 의 처 : 동명대학교 LINC+사업단 지역사회협업센터
접합주 ☎ 051-629-3836 (월~금 09:00~18:00)

코로나19 관련 부산예술인 긴급생계지원

1차 대상자	2차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부산 최초 확진일 (2020. 02. 21.) 이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주민등록기준상 부산광역시 거주자 • 신청일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 • 1차 지급 예정일 : 6월 3~4째 주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부산 최초 확진일 (2020. 02. 21.) 이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주민등록기준상 부산광역시 거주자 • 1차 미신청 예술인으로 예술활동증명이 2차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자 • 예술활동증명 갱신 완료자 • 예술활동증명 신규 완료자 • 지급 예정일 : 7월 5째 주 이전(예산 소진 시까지)

문의 : (재)부산문화재단 예술인긴급지원팀 ☎745-7257, 7258, 7259, 7260

- 접수기간
1차 2020.5.21.(목)~6.3.(수)
2차 2020.6.19.(금)~7.10.(금)
- 접수방법 :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주민번호 5부제 시행
- 제출서류 : 긴급생계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예술인활동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지급방법 : 부산 지역화폐 ‘동백잔’ 포인트로 1인당 50만원 지급 (2020.12.31.까지 사용)

우리지역 일자리 알리판

(2020. 5. 26 기준)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인원	모집기간	임금조건	연락처
(주)한리조자이 휴대기기 한성립부산 생활협동조합	영호동	간호조사사	1명	2020. 5. 26. ~ 채용시	월급 1,795,310원	626-3393
(주)한리조자이 휴대기기	영호동	매장계산원	1명	2020. 5. 26. ~ 채용시	시급 8,600원	1800-8258
대평양유통	문현동	사회복지사	1명	2020. 5. 26. ~ 채용시	월급 2,000,000원 ~ 2,500,000원	626-3393
주식회사 씨엠에스원	문현동	배출 및 납품운전원	1명	2020. 5. 26. ~ 채용시	월급 1,900,000원 ~ 2,000,000원	626-4500
쓰리에이치 산업개발 주식회사	대연동	산업안전 관리자	1명	2020. 5. 26. ~ 채용시	월급 2,000,000원 ~ 2,000,000원	955-5126
부산소방안전설비	감만동	경리사무원	1명	2020. 5. 26. ~ 채용시	연봉 22,000,000원 ~ 24,000,000원	757-3335
동부산 해피케어	대연동	소방시설 설비 시공 기술자	1명	2020. 5. 26. ~ 채용시	월급 2,000,000원 ~ 3,500,000원	010-5437-7973
세무법인태을	대연동	산후조리 종사원	10명	2020. 5. 26. ~ 채용시	월급 1,795,310원 ~ 3,000,000원	635-3579
청아냉동식품	대연동	회계사무원	1명	2020. 5. 26. ~ 채용시	연봉 25,000,000원 ~ 32,000,000원	628-0800
		배출 및 납품운전원	1명	2020. 5. 26. ~ 채용시	월급 1,800,000원	637-1066

※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worknet)와 연계

※ 남구 취업정보센터 ☎607-4347~8 Fax. ☎607-4349

지방세

**이제 비대면으로
납부하세요**

구분	세액공제	신청방법
전자고지	고지서 1장당 350원	위택스(www.wetax.go.kr) - 부가서비스 -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부산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 편의기능 - 전자고지 신청모바일지료 - 하단 MY GIRO - 전자고지 - 전자고지 신청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간편결제앱에서도 신청 가능
계좌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자동납부	고지서 1장당 150원	위택스(www.wetax.go.kr) - 부가서비스 - 지방세 자동납부 신청 부산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 편의기능 - 자동이체 신청
신용카드 포인트	고지서 1장당 150원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부산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dp 접속하여 신용카드 납부 선택 후 포인트로 세금 납부(삼성, 신한, 롯데, 현대, 비씨, 하나SK, 국민, 농협, 씨티카드 등 가능)

※ 전자고지자와 자동이체(납부)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 세액공제
문의 : 세무1과 ☎607-4185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48452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77, 4078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nan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